

# 칼빈의 제 I 목회원리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a Gloria Dei) 모티프 이해

“Sola Gloria Dei” Motif as Calvin’s Primary Ministerial Principle

이 주 영  
(실천신학/총장)

##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티프(sola gloria Dei motif)
  - III. 제네바 요리문답(Genevan Catechism)에 나타나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의 다양한 측면들
  - IV. 나가는 말
- Bibliography

##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그 주류(main-line)을 이루고 있다. 재고의 여지없이 칼빈(John Calvin)의 신학적 후예들이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주류 개신교(main-line protestant)에 속한 교회들도 칼빈의 사상적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칼빈신학의 내용의 그 포괄성(comprehensibility)과 삶 속에서의 적실성(relevancy)에 있다고 사료된다.<sup>1)</sup> 칼빈의 신학 사상은 결코 추상적·사변적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실천적이다.

몇몇 칼빈 학자들은 칼빈의 신학은 논쟁적(polemical)인 측면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최근의 칼빈신학 연구의 경향성은 점차 교리 논쟁적 측면보다 대조적인 삶과 영성(Christian Life and Spirituality)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성있게 천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Richmond, Virginia)교수인 존 리이쓰(John H. Leith)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the heart of the matter)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a Gloria Dei)이었다고 천명해 주고 있다.<sup>2)</sup> 이것은 칼빈이 자주 반복해서 천명했던 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We are God's)에 잘 반영되어 있는바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sovereign grace)와 구속적 은혜(redemptive grace)가 하나의 동일한 실재(one and same reality)이며 이 두 가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통일성있게 계시되고 있다(revealed in their full integrity)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된 그리스도교적 삶(christian life)에서는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처음이며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이다.

칼빈의 그의 「기독교 강요」속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별(聖別)되어 바쳐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묵상하거나 행해서는 안된다. ……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자”<sup>3)</sup>

1)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89) ; Herrmann Bauke,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Leipzig : J.C.Hinrichs, 1922) 참조.

2) John H. Leith, p.9.

필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칼빈의 제 I 목회원리인 “하나님께만 영광을”(sola gloria Dei) 모티프를 그의 주저를 통해 논구하려고 한다.

## II.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티프(“Sola Gloria Dei” motif)

재론의 여지없이 기독교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은 최고의 인간목표로서 모든 인간적인(corporel) 선(善)보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sup>4)</sup> 칼빈은 사돌레토 추기경(Cardinal Sadoletto)에게 보낸 답신(*Reply to Sadoletto*)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자기실존(自己實存)의 제 1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의 생각을 한정하는 것은 건전한 신학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 안에서 존재를 유지하므로(롬 11:36), 그것들은 모두 그와 관련시켜서만 생각되어야 한다.

나는 참으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합당한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구원과 확고하게 연합시킴으로써 그것을 장려하고 널리 퍼려는 열심을 인정시키셨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열심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든 생각과 염려를 능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자연스러운 정의심도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그를 더 좋아하지 않는 한 그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의 영혼구원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경건에 젖어있는 사람치고 그를 일깨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생활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오랫동안 힘들여 하는 권면을 무미건조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 Tr. by John T. McNeill, Ford L.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76), III-7-1.

4) *Corpus Reformatorum: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E. Reuss(Brunswick : C.A. Schwetschke et Filium, 1863-1897) 이하 CR이라함. CR 26:693.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다.”<sup>5)</sup>

이 교리는 이중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다른 목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sup>6)</sup>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게 하자.”<sup>7)</sup>

그 교리는 또한 구속이라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이유이다.<sup>8)</sup>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sup>9)</sup> 성화(聖化, sanctification)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속한다.<sup>10)</sup>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final) 이유(cause)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려는 것이다.<sup>11)</sup>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a gloria Dei)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자기 본위(self-seeking)에 쫓은 모든 행동의 근거를 없애 버린다. 참된 도덕성은 하나님께만 지향되어 있다.<sup>12)</sup> 본 연

5) *Opera Selecta Joannis Calvini*, ed. Petrus Barth and G. Niesel(Munich Chr, Kaiser, 1926), 이하 OS라 함, OS 1:363-364.

6) CR 24:362; 26:270; 32:170.

7)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이하 *Inst*로 함. III-7-1; CR 33:570.

8) CR 26:225.

9) CR 29:5; CR 26:490.

10) CR 51:147.

11) *Inst* III-14-17; III-15-21.

12) CR 45:191; Karlfried Fröhlich, *Gottereich, Welt und Kirche bei Calvin*(Munich : E. Reinhardt, 1930),

구과정을 통해 밝혀지는 대로 기독교적 삶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적인 응답이다.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어떤 행동양식을 모방하는 것이거나 어떤 이상(理想)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활발하고도 깊이 있는 상호 관계이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미래의 삶을 명상하는 데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 칼빈이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논문이 풀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칼빈의 사상과 실천(practice)을 해석하려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sup>13)</sup> 이 개념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2) 인간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3)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답들이 주어진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 속에 비취고 있다는 설명이다.<sup>14)</sup>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의 영광을 희미하게 가리지 않으시고 장님이라도 더듬어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한 표적들을 어디에나 새겨 놓으셨다.”<sup>15)</sup>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 그의 지혜와 권능에 내재한다.<sup>16)</sup> 그의 권위와<sup>17)</sup> 의에도<sup>18)</sup> 역시 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부성적 사랑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sup>19)</sup>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포하신 복음에서 밝히 드러난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것이다.<sup>20)</sup>

p.30. “칼빈의 가장 깊은 관심사는 세계나 그 역사가 아니다. 또 세상적인 질서나 사회적인 생활도 아니다. 경제의 운용이나 생활의 관리도 아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이 그 관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13) Perter Barth, “Calvin” in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Tübingen : J.C.B.Mohr, Paul Siebeck, 1927) I:1431-1432.

14) CR 33:570; 49:514.

15) CR 48:415.

16) CR 43:428~429.

17) CR 36:89.

18) CR 40:84.

19) CR 36:129.

20) *Inst.*, III-2-1; CR 43:550; 52:256.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화해를 바라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데에 밝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권능과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매일 행하시는 모든 심판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동시에 그의 영광은 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신다는 데서 주로 밝히 비추어진다. 그는 비참한 죄인들이 그에게 화목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초청하고 기다리신다는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밝히 드러난다.<sup>21)</sup>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까지도 드러난다.

왜냐하면 한 장엄한 극장(theatrum)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이 전세계 앞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고상하며 비천함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비추신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보다 더 밝게 그것이 비친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 십자가에서는 만물은 깜짝 놀라게 하는 변화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분명히 선언되었으며, 죄는 완전히 말소되었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회복되었으니 한 마디로 온 세상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훌륭한 질서대로 회복되어졌다.<sup>22)</sup>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그의 구속은혜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은 그의 영광이 인간을 노예처럼 복종하도록 몰아넣는 냉혹하고 거친 어떤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에서의 궁극적 사실이 권능과 더불어 구속의 은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그의 용서하시는 사랑에서 드러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성을 그의 독자들과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심어주는 수단으로서 땅위의 왕들이 누리는 영광을 들어 소개하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지상의 왕이 취하는 영광은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명백히 나타난 용서하시는 사랑과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sup>24)</sup> 그리

21) CR 43:428.

22) CR 47:316.

23) CR 27:244~245, 250, 434.

24) CR 27:247.

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런 잘못된 유비는 칼빈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게 했다.<sup>25)</sup>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에 관하여 제기되는 둘째 질문은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무시함을 의미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총회(The Westminster Assembly)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다.<sup>26)</sup>

칼빈은 최고의 인간적 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어진다고 확신하였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선은 하나님과의 연합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이신 그를 따라 우리가 만들어질 때 얻어진다.”<sup>27)</sup> 행복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sup>28)</sup>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아무것도 겸하고 있는 것이 없다.<sup>29)</sup> 때때로 칼빈은 행복한 생활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맺고있는 관계에 의하여 정의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질적으로 꼭 같다.<sup>30)</sup>

다른 정의들은 행복한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우리의 눈을 이 현세적인 생활 너머에 있는 세상에 고정하는 데 있다고 한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참된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는 중심이 되는 관념의 서로 다른 측면들일 뿐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데” 것이다.<sup>32)</sup> 우리

25) CR 27:251, 263; 29:143.

26)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t. I. *Book of Confessions* (New York & Atlanta :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983)

27) CR 55:48.

28) *Inst.*, II-1-4.

29) CR 31:154; 34:468.

30) CR 50:443; 55:299, 327.

31) CR 27:135; 50:363.

32) CR 33:662.

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기능들이 부패해졌다.<sup>33)</sup>

인간은 그들의 최고 선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성취한다.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인간의 행복을 돕는다. “하나님은 영광이 필요하시거나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신다.”<sup>34)</sup>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이다.<sup>35)</sup>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과 이처럼 결부시켜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둘 중 다른 하나 없이 남은 하나를 얻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나 손실을 가져다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의 헌신으로 그분을 위해 투쟁할 때까지도 그분은 전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를 그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신다. 무슨 목적으로 그러시는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세상에서나 세상적인 사물에서 자기의 선(good)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sup>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인간의 행복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칼빈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구원에서 최고로 나타난다는 그의 가르침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때때로 그것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기도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관계될 때마다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성은 거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사정없이 몰아부치는 것이 필요하겠는가?<sup>37)</sup>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decree)은 절대주권적이심을 보여주

33) CR 28:488.

34) CR 26:309.

35) CR 26:102, 27:78-79.

36) CR 51:13; CR 28:588.

37) CR 8:476.



기 위하여 자연질서를 경멸하면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아무 일이나 닦치는 대로 마구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38)</sup>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과장된 표현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은 확실히 위험한 과장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할 때 칼빈의 동기가 아무리 고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사실들은 칼빈이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에 대한 사형선고를 아무런 명백한 감정의 동요 없이 어떻게 바랄 수 있었을까를 설명해 준다.<sup>39)</sup> 비록 그가 죽음의 통절함을 충분히 느낄 수는 없었으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sup>40)</sup>

칼빈 자신은 앞에서 예거한 표현들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랑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그의 주장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음을 깨닫지는 못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오늘날 칼빈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 보려는 사람들에게 앞서 말한 상식이탈적(常識離脫的)인 일들을 더욱더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그의 모순점을 보여 주는 전거(典據)를 일일이 분리하는 일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칼빈의 신학방법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말씀에 최대의 충성을 공언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 그는 실지로 성경의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합리화시켜 보려는 거의 불가항력 경향성의 결과로 성경말씀을 넘어서고 있다. 그는 인간이성의 죄성을 분명한 개념들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자신의 추론들은 일단 성서적 전제들이 가정되고 나면 이성은 신학화해 가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사람들을 영광의 왕의 살아 계신 현존(現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칼빈의 의도였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현존 앞으로 나아갔던 배경(context)이었다. 그러나 그가 때때로 땅 위에서 왕이 누리는 영광을 살아 계신 현존의 영광 대신에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셋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경우마다 나

38) CR 29:143; 27:263; 44:348.

39) CR 14:590.

40) CR 11:188ff.

름대로의 응답을 보이는 것이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활동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다.<sup>41)</sup>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범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sup>42)</sup>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실 길을 지시해 주셨다. 즉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얻는 경건이 그것이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망신스럽게 하는 것이다.<sup>43)</sup>

선행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sup>44)</sup>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 드러난다.<sup>45)</sup>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honor)를 받으실 때에만 영화롭게 된다. 인간의 생활에 관한 상반되는 주장으로 그를 거스리는 다른 ‘목표들’(objects)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다.<sup>46)</sup> 사람들이 그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sup>47)</sup>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도 영광을 받으신다.<sup>48)</sup>

### Ⅲ. 제네바 요리문답(Genevan Catechism)에 나타나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의 다양한 측면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측면들은 제네바 요리문답(Geneva Catechism)에 잘 요약되어 있다.

41) CR 33:186, 46:611.

42) CR 26:166; *Inst.*, III-13-1ff.

43) CR 49:51.

44) CR 49:245.

45) CR 47:377~378.

46) CR 31:779.

47) CR 24:157.

48) CR 51:21.

교사 : 인간생활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 :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사 :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그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교사 : 인간의 최고 선은 무엇인가?

학생 : 꼭 같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사 : 왜 그것이 최고 선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 : 그것 없는 우리의 상태는 짐승보다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된 셈이로군.

학생 : 그렇습니다.

교사 :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학생 :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교사 :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학생 :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생 동안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섬기는 것이며, 그에게 바랄 수 있는 것, 곧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마음과 입술로 모든 축복을 홀로 쥐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sup>49)</sup>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예로서의 두려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응답의 사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지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개인의 전적인 응답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요리문답이 가리키는 대로 신뢰, 봉사, 의지(依支), 그리고 감사라는 개인적인 응답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요구가 신자 개인의 삶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이런 개인적인 응답은 생활 전반에 걸친 복종(surrender)을 의미한다. 그런 해석의 원리는 로마서 12:1의 본문에서 발견된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sup>50)</sup> 드리는 것이 신

49) CR 6:9~10.

50) Inst., III-7-1.

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명상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삶의 매 순간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sup>51)</sup> 인간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다.<sup>52)</sup> 입술로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sup>53)</sup> 칼빈의 기독교적 삶의 교리가 가지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절대주권적인 요구하에서 영위되는 삶이라는 것이다.<sup>54)</sup>

우리의 모든 행동에 관한 첫째 규칙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훌륭한 덕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모든 덕행들도 단순히 사람들의 눈 앞에서나 내비치는 향기일 뿐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요구가 그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공중누각을 짓는 사람과 같이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말하자면 우리 위에 그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전과정은 혼란스러울 뿐인 것이다.<sup>55)</sup>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참된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 군인들이 사령관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로 묘사한다.<sup>56)</sup>

이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신자의 생활에서 불러일으키는 이런 철저한 응답을 주장한 결과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과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서 공히 극단적인 생활(intense living)을 요구하게 된다. 바로 이런 극단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군주들에 비추어 보는 유비(analogy)를 통해 걸러진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간격을 강조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생활에 지워지는 의무는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장님

51) *Inst.*, III-7-2.

52) CR 26:116, 224.

53) CR 26:614.

54) CR 23:59, 24:213, 26:55, 67, 79, 136, 51:42~43, 52:148, 268, 55:27.

55) CR 43:208.

56) CR 26:439~440, 650, 27:78~79, 28:210, 52:361.

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다.<sup>57)</sup>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처한 비참한 곤경은 이와 같다. 즉 아담은 자기가 지음받은 그 상태로 계속 있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한 것이었다.<sup>58)</sup> 그의 타락은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상태는 원죄에 비추어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원죄란 “영혼의 구석구석에까지 퍼져있는 우리 본성의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부패와 타락상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게 하고, 성경말씀이 ‘육에 속한 일들’이라 부르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 안에 양산해 낸다.”<sup>59)</sup> 타락의 결과들을 고찰할 때 우리는 인간이 지음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차원의 관계, 즉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에 함께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sup>60)</sup> 자연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능력들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빼앗겨 버렸다.<sup>61)</sup>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었고, 그런 식으로해서 인간의 행복한 삶과 관계되는 모든 성질들은 중생의 은혜로 그것들을 다시 찾기까지 그의 안에서 말살되어 버린다. 말살되어 버린 것들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룩함과 의에 대한 애착 등이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찾아지는 이 모든 것들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길 잃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결론짓는다.<sup>62)</sup>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에밀 브룬너(E. Brunner)가 즐겨 쓰던 말 그대로 ‘인간본성 (humanitas)을 지니고 있다.’<sup>63)</sup> 이성도 파괴되지 않지만 약해지고 부패되어서, 기형적이고 황폐한 모습 이외의 아무것도 내보이지 못한다.<sup>64)</sup> 의지도 파괴되어 버리지는 않지만 악한 욕

57) *Inst.*, II-2-1ff.

58) *Inst.*, II-2-1ff.

59) *Inst.*, II-1-8.

60) *Inst.*, II-2-12.

61) *Inst.*, II-2-12.

62) *Inst.*, II-2-12.

63) Emil Brunner, *Man in Revolt*, tr. by, Olive Wyon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39), p.96.

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예 선을 추구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인 질서확립과 예술과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는 인간이 팔목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업적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이다.<sup>65)</sup>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나 그의 은혜 또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규범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없다.<sup>66)</sup>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런 지식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sup>67)</sup>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의 악함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내적 청결과 무관하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인간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런 요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거듭남도 얻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IV. 나가는 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모든 순간,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관계를 맺는다) - *negotium cum Deo* -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표현해 보려는 일련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a gloria Dei)이라는 모티프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칼빈의 해석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은 없다고 필자는 단언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 (*gloria homini*)에 관심을 가져왔고 인간들은 많은 거짓 신들과 사악한 이데올로기(Ideology)의 희생물이 되게 했던 지난 우리 세대를 향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 그는 16세기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남긴 *Soli Deo Gloria!* 라는 그의 기본사상은 새천년을 맞은 오늘의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각인되어야 할 모티프가 되어야 할 것이다.

64) *Inst.*, II-2-12.

65) *Inst.*, II-2-14ff.

66) *Inst.*, II-2-18.

67) *Inst.*, II-2-18ff.

## Bibliography

- Barth, Peter, “Calvin” in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Tübingen : J.C.B.Mohr, Paul Siebeck, 1927.
- Bauke, Hermann,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Leipzig : J.C.Hinrichs, 1922.
- Brunner, Emil, *Man in Revolt*, tr, by Olive Wyon,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3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 Tr, by John T. McNeill, Ford L.  
Battles, PA : The Westminster Press, 1976.
- \_\_\_\_\_, *Corpus Reformatomm :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by,  
G. Baum, E. Cunitz, E. Reuss, Brunswick : C.A.Schwetschke et Filium, 1863~1897.
- Fröhlich Karlfried, *Gottesreich, Welt und Kirche bei Calvin*, München : E. Reinhardt, 1930.
- Leith H. John,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89.
-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New York & Atlanta :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983.